

익산시 “체육복지 실현할 것”

100세 실버시대 걸맞는 노인건강 증진 대책마련 분주 다목적체육관 신축 ·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 의지표명

익산시가 향후 100세 시대를 대비한 어르신들의 체육을 통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체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2020년 12월 10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익산시는 전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만 60세이상 이순 협회가 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어르신들 체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 않겠다고 말했으며 도·농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개발 및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현을 익산시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체육관을 신축 중 ▲각 종목별 동우회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지도자 확보 ▲종목별 대회유치 및 대회출진기회 부여 ▲트레닝과정에서 건강상문제 발생시 신속히 응급처치해 줄 수 있는 응급처치사 확보 등 익산시가 100세 실버시대에 걸맞는 노인건강 증진 및 건강한 삶 영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어르신들 위한 다양한 종목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물론 정례적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스포츠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운동과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신체적, 정신적인 가치 뿐 아니라 질병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발생하는 노인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고령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향후 익산시의 어르신 체육 복지 정책이 귀추가 주목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정현을 시장은 지난 18일 방역점검 상황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 직원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시, 코로나19 비상체제 돌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 공공시설 폐쇄 10월 4일까지

익산시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하는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모든 시설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서는 한편 공공시설 폐쇄기간을 연장해 고강도 방역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 18일 간부 공무원과 방역점검 상황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 직원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게 이날부터 주말 휴일까지 비상근무 명령을 내리고 전 직원을 동원해 다중이용시설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1일 1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유흥단지주점, 뷔페음식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 7개 업종 총 415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기존 2회 추진하던 중·저위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고위험시설과 동

일하게 매일 실시하며 모든 시설은 방역수칙 1회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방문판매업 103곳에 대해서는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타지 방문 또는 외부인 방문 자제 위반으로 확진 시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임시 폐쇄 방침도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폐쇄되는 곳은 모든 실내·외 체육시설을 포함해 영도역 사관과 보석박물관, 근대역사관, 예술의전당 미술관 등 지역 관광시설이다.

경로당과 청소년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모든 복지시설도 폐쇄됐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을 포함해 강좌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이 중단됐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도 임시 폐쇄되며 긴급돌봄은 유지된다.

정현을 시장은 “추석 연휴까지 방역이 지역 확산을 막는 최대 분수령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녹색교통 재생자전거 100대 기증

익산시는 지난 18일 아파트와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재탄생된 자전거 100대를 행복나눔마켓·뱅크에 기증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채택된 녹색교통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모현동 소재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자전거로 재탄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창출, 도시미관 개선, 자원재활용 등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재탄생된 자전거는 민경각 및 옹포

꿈개나무 자전거 무료 대여소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추후 저소득층에 기증해 이웃을 돕는 나눔 문화 확산과 즐거운 자전거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탄생된 자전거를 공공사업 및 저소득층 등에 기증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물론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슬기로운 가족생활 군산시 사진공모전

군산시가 2020년 슬기로운 가족생활 사진공모전을 개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혼 장려 및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으로 집안에서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슬기로운 가정 친화적인 지역사회문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군산시 슬기로운 가족생활 사진공모전 접수기간은 21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로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사진전 주제는 다둥이 가족,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부부의 모습 등이 있으며 코로나19로 집에서도 가족과 함께 슬기롭게 즐길 수 있는 놀이나 가사 등을 통해 행복한 장면을 보여 주는 사진을 담아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charn@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사진 중 사진삼사를 거쳐 30점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슬기로운 병원생활 강좌 원광대 평생교육원 개설

원광대학교(총장 박명수) 평생교육원은 대학부설 건강정보 소문연구소와 협력해 ‘지역주민의 슬기로운 병원생활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지난 18일부터 첫 강의를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을 건강하게 수용하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역량과 건강정보 소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획한 이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수강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구성됐다.

특히 교육과정은 일반 교육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인지, 언어 표현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진단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근거한 건강정보를 검색하고, 응급상황 등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정보를 잘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 나운3동, 취약계층 1인가구 돌봄 확대 ‘눈길’

지역최초 유료 자원봉사 모집 ‘이웃끼리 돌봄 시범사업’ 추진

나운 3동이 군산시 최초로 유료 자원봉사를 모집해 저소득 1인 취약계층 1인가구 돌봄을 확대 추진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 나운3동주민센터(동장 강홍제)는 약화된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기존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우리 동네 좋은 이웃들 이웃끼리 돌봄 시범 사업을 9월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나운3동은 그동안 저소득 독거노인과 1인 청장년층 418명에 대해 고독사 예방 및 저소득층 안부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담당 공무원과 복지도우미들이 매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가구 발생 시 신속히 가정방문을 실시해 위기상황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상자의 개별 상황에 맞추어 통합사례관리 또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양극화 심화로 돌봄 취약계층이 증가되



군산시 나운3동주민센터는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이웃끼리 돌봄 시범사업’을 9월부터 확대 추진한다.

고 있어 더욱 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군산시 최초로 유료 자원봉사를 모집해 고위험군 1인가구 거동불편 주민이나 독거노인에게 상시적으로 안위를 돌보는 우리동네 좋은 이웃들 이웃끼리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종 5명을 선정해 지난 17일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선정된 자원봉사자는 자기가

거주하는 근거리의 고위험 10가구를 주 2회 이상 상시적으로 건강, 경제, 생활상태 현지확인, 정서지원, 간단한 생활지원 등을 주민센터와 공유, 공공·민간서비스와 연계하여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며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한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보건소 “고향방문 · 귀성 최대한 자제”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며 고향방문과 귀성 등에 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보건소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발생되는 가운데 민족대명절인 추석

을 맞아 이번 연휴기간 동안에는 고향방문 및 귀성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는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인플루엔자 유행시기가 다가오고 있

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고 고향방문 뿐만이 아닌 친지와의 만남, 요양병원, 요양원 등 시설방문도 풍영상 안부, 영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해결 것과 성묘도 최소인원으로 별초하고 거주지서 따로 추석상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줄 것을 권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